

인기 스포츠 여자 프로배구 광주서 본다

도로공사·IBK·현대건설·인삼공사 4개팀 9월 6~8일 '미니리그' 일본 전훈 대신 KOVO컵 대비 전력 점검...유소년 배구교실도

광주에서 여자 프로배구선수들의 플레이를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19일 광주시배구협회에 따르면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시범경기'(가칭 미니 리그)를 연다.

김천 한국도로공사와 화성 IBK기업은행, 수원 현대건설, 대전 KGC인삼공사 등 여자프로배구 4개팀 실무자는 이날 광주에서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 임원진 등과 협의, 이같이 결정했다.

미니 리그는 광주시배구협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경기 일정은 지난달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남자부 수원 한국전력과 안산 OK저축은행, 천안 현대캐피탈, 대전 삼성화재의 '서머리그'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2경기씩, 3일간 모두 6경기를 치른다.

각 구단들은 경기에 앞서 오전에는 2시간씩 광주지역 학교배구 선수들과 유소년 배구클럽 선수들을 대상으로 배구 배구교실도 진행한다.

미니리그는 여자 프로배구팀들의 일본 전지훈련을 대신해 추진됐다. 여자배구 구

단들은 당초 9월 초에 일본 전지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자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일본 전훈을 취소하는 대신 국내 전지훈련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지팀 중 가장 먼저 일본 전지훈련을 취소했던 KGC인삼공사는 오는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배구연맹(KOVO)컵을 대비한 시범경기를 개최하기로 제안하고, 다른 팀들이 동의하면서 광주 미니리그가 추진됐다.

구단들의 제안을 받은 광주시와 광주배구협회는 프로배구 불모지인 광주에 배구 붐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실내 프로스포

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니리그 개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미니리그를 통해 각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KOVO컵에 대비해 조직력을 강화하고 실전 경기감각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은 "한국전력 배구단 광주 연고 이전 실패로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했는데 최고 인기 스포츠인 여자프로배구를 직접 볼 수 있게 돼 배구인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프로선수들이 광주지역 유소년을 위한 배구교실도 운영할 계획이어서 꿈나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선수층 두터워진 전남 육상 '주목'

추계중·고 육상경기 금메달 12개 등 29개 메달 수확 체육중·고 활약 속 일반학교 대상 유망주 발굴 성과

전남 육상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체육 코스를 밟고 있는 전남체육중·고 학생이 메달을 주로 따왔으나 최근 일반 학교 선수까지 가세해 '메달밭'이 풍성해졌기 때문이다.

19일 전남도체육회와 전남육상연맹에 따르면 육상 차세대 유망주들이 최근 충북 보은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8회 추계 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2개 등 모두 29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일반 학교에 재학중인 육상선수들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눈길을 끌었다. 체육회에서는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망주 발굴 프로그램에 따른 성과로 해석하고 있다.

하당중학교는 남중부 400m계주에서 박철수·서정문·조상현(이상 3년), 이정현(1년)이 귀중한 은메달을 획득했다. 조상현은 5종 경기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순천 금당중 장예찬(3년)도 남중부

멀리뛰기에서 6m52를 뛰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고부 110m허들경기에서 출전한 목포문태고의 명민건(1년)도 16초31의 기록으로 서울체고 양민혁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강진고등학교 허정인(1년)은 남고 1학년부 100m에서 11초12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전남체육중·고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전남 육상의 자존심'을 지켰다. 금메달 11개를 포함 24개의 메달을 쓸어들었다. 이은빈(여중부)은 1학년임에도 3학년 선배들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독심을 선보였다. 100m, 400m계주 2관왕, 1600m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철수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남 육상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들이 좋은 결과를 내줘 반갑다. 일반 학교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와 뜻 깊다"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자육상 밀러-위보 '아무도 못 막아'

버밍엄 대회 200m 우수 2년간 모든 경기 무패 행진

쇼네이 밀러-위보(25·바하마)가 출전한 경기의 마지막 장면은 2년째 똑같다. 밀러-위보가 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경쟁자들의 축하 인사를 받는다.

그는 주 종목 400m는 물론이고, 200m에서도 2년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밀러-위보는 19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2019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버밍엄 다이아몬드리그 여자 200m 결선에서 22초24로 우승했다.

시선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은 전통적인 인기 종목인 남자 100m가 아닌, 여자 200m였다. 이례적으로 필드 종목 마지막 경기를 여자 200m로 정한 것도 '인기'를 반영한 결과였다.

이날 여자 200m 결선에는 이 종목 세계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다프너 스키퍼스(네덜란드),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7개를 딴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자메

이카), 유럽선수권 챔피언 디나 어셔-스미스(영국), 아프리카 단거리 영웅 블레싱 오카바레(나이지리아) 등이 출전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100m와 200m를 석권한 일레인 톱슨스(자메이카)을 제외한 여자 200m 강자들이 모두 모였다.

그러나 아무도 밀러-위보의 무패 행진을 막지 못했다.

밀러-위보는 직선 주루에 진입할 때까지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결승선 50m를 앞두고 속도를 높여 프레이저-프라이스와 어셔-스미스를 제치고 우승했다. 어셔-스미스가 22초36으로 2위, 프레이저-프라이스가 22초50으로 3위를 차지했다.

밀러-위보는 2018년과 2019년 200m 13번, 400m 6번의 레이스를 펼쳤고 모두 1위에 올랐다. 공식 종목이 아닌 300m도 두 차례 경기를 펼쳐 모두 우승했다.

밀러-위보는 9월 27일 개막하는 도하 세계육상선수권에서는 400m와 계주 종목에만 출전한다. 하지만 올해 밀러-위보는 주 종목 400m만이 아닌 200m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쇼네이 밀러-위보가 18일(현지시간) 2019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영국 버밍엄 다이아몬드리그 여자 200m 결선에서 1등으로 골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우 US오픈 테니스 예선 3번 시드...정현은 29번

권순우(92위·CJ후원)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US오픈(총상금 5700만달러) 남자 단식 예선 3번 시드를 받았다.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막을 올리는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예선 대진표에 따르면 권순우는 1회전에서 J.C 에러거너(255위·미국)를 상대한다. 예선에서 3연승을 하면 본선에 나갈 수 있다.

권순우가 1회전을 통과하면 2회전에서는 오스카 오테(163위·독일)-고빈드 난다

(709위·미국) 경기 승자를 상대한다.

권순우는 2018년 호주오픈, 올해 윌버던에서 본선에 진출했으나 모두 1회전에서 탈락했다.

정현(135위·한국체대)은 29번 시드를 받고 1회전에서 제바스티안 오프너(168위·오스트리아)와 만난다.

남자 단식 예선에는 정운성(260위·CJ후원)까지 한국 선수 3명이 출전한다. 정운성은 살바토레 카루소(105위·이탈리아)와 1회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다시 뛰는 광주수영대회 영웅 김수지

21일 전주 대통령배 수영대회 김서영·양재훈 등 출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사상 처음 메달을 목에 건 김수지(울산광역시)가 한달여 만에 다시 공식 대회 다이빙대에 선다.

김수지는 21일부터 전주 완산수영장에서 열리는 제38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 출전한다.

19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김수지는 이번 대회에서 10m 플랫폼과 1m 및 3m 스프링보드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김수지는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2019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따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썼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는 경영의 박태환에 이어 김수지가 두 번째다. 다이빙 종목에서는 김수지가 처음이다. 김수지의 동메달은 광주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수확한 유일한 메달이기도 했다.

한국 남자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은 출전 신청을 했으나 컨디션 관리에 의해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우하람은 광주대회에서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남자 1m 스프링보드와 3



김수지 m 스프링보드에서 4위, 10m 플랫폼에서는 6위를 차지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3m 스프링보드와 10m 플랫폼 종목에서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권도 따냈다. 광주대회에서 우리나라 경영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오른 김서영은 주 종목인 개인혼영 대신 접영 50m와 평영 200m에 참가 신청을 했다. 광주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50m 한국 신기록(22초26)을 세운 양재훈(강원도청)은 접영 50m와 100m에 출전한다. 광주대회 여자 계영 400m에서 대회 첫 번째 한국 신기록(3분42초58)을 합체육진흥공단)은 출전 신청을 했으나 컨디션 관리에 의해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우하람은 광주대회에서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남자 1m 스프링보드와 3 /연합뉴스

산행안내

8월 21일(수)
▲광주청록산악회 8월21일(수) 경남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6: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후문 07:10, 각화동 현대물류양 07: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8월 24일(토)
▲광주호산회 8월 24일(토)해파랑길26

코스, 05:0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5:30 롯데백화점, 05:45분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8월 25일(일)
▲광주알프스산악회 08월 25일(일) 경남 함양 선비문화탐방길, 영주체육관 07:30, 대인광장 07:50, 동광주홈플러스 08:00 *다음카페 광주알프스산악회 ☎ 010 3646 1636, 010 3633 7009

▲광주산사모산악회 8월25일(일) 신안군 자은도 두봉산-백길해수욕장 (단합대

회), 영주 모래포츠 입구 05:40, 상무 무각사 05:50, 광주시의회 05:55, 운남 21세기병원 06:05, 수안 지하도 위 승강장 06:10,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06:20, 비엔날레주차장 앞 06:3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악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광주자연보존단사회 8월25일(일) 백암산(전북완주&충남금산-왕사봉, 신선봉, 선야봉 연계산행), 06:40 영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주 홈플러스 *다음카페:광주자연보존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8월 28일(수)
▲광주KJ산악회 8월25일(일)전북 진안군, 윤일암반일암, 굴길계곡트레킹산행, 영주체육관7:30, 백운우체국7:35, 돌고개7:40, 광주역7:55, 문예후문8:00, 비엔주차장8:05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광주청록산악회 8월28일(수) 충남 금산 선야봉/느티계곡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6: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후문 07:10, 각화동 현대

물류양 07: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8월 31일(토)
▲광주호산회 8월31일(토) 괴산 칠보산,

06: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07: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소규모합병공고

에이치티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200111-031384)는 2019. 8. 16.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아이치티(법인등록번호:205911-0020795)를 소멸법인으로 한 부중자립수립병을 의결하며 합병 제 57조5호의 제정령의 의거, 소멸되는 회사인 상중주 주식회사 아이치티(합정·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880번길 28(송원동), 합정빌딩은 2019. 9. 24.이며 소규모합병에 따라 당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에이치티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880번길 29(송원동)
대표이사 오준호

매도발

- 금곡동 산아래·시원한바람 통
- 510평 / 주차장 완비 (콘테이너 유치 가능)
- 버스도로에서 60m

☎ 010-3638-1008

즐거운 문화상책

롯데시네마 | 충장로관

1관	분노의 질주: 홉스&쇼
2관	분노의 질주: 홉스&쇼
3관	분노의 질주: 홉스&쇼
4관	엑시트, 수상한 교수
5관	봉오동 전투
6관	봉오동 전투
9관	엑시트
7관 씨네커뮤니티	안녕, 티라노: 영원히 함께, 사자 앵그리 버드 2
8관 씨네커뮤니티	봉오동 전투, 원더랜드, 마이펫의 이중 생활 2, 압전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쇼팽 VS 리스트	8.22(금) 6:30pm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살롱 드 오수경 'Salon de Tango'	8.28(수) 7:30pm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11시 클래식 산책 악마의 테크닉: 리스트와 파가니니	9.10(화) 11:00am 광주문예회관 소극장